



16면

"문화로 행복한 군민 실현 위해 굳정 집중"

# 전주매일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음 11월 16일) 제315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8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열린 전북도 선도기업·스타기업 최고경영자(CEO) 혁신 포럼에 김관영 도지사가 2022년도 지원사업 성과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 도내 선도·스타기업 최고경영자 '한자리에'

**'혁신포럼' 서 138개사 CEO들이 모여 지역산업발전 도모**  
**KDI 원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리경제 전망' 강연**  
**취업경쟁력 강화 위한 선도기업 분석대회 우수팀 발표도**

도내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한데 모여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재)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종합기술원은 8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전라북도 선도기업·스타기업 CEO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중심축인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여 정보교류, 상호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22년도 지원사업 성과전시회 등을 통해 상상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에 기초한 지역과 중앙정부 기업 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전라북도 대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으

로 구성된 선도기업 70개사, 스타기업 68개 사가 기술개발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으로 기술 해결,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One-stop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2022년도 3분기 매출액 및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선도기업은 13%, 스타기업은 9.1% 증가해 전 세계적인 경영환경의 불안정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포럼 강연자로 초청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리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경제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방향에 대한 강연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지난 2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품 경쟁상태, 복리후생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고 시장을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정보제공과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실시한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에서 우수한 팀(전북대학교 김진, 김지현)의 발표도 있었다.

이와 함께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은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공로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 공급망 붕괴 등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다양한 기업육성정책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기존 기업들의 성공을 돕고, 우수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성장연진에 불을 붙여 전북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전북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군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도 '앞으로도 기업 최고경영자 간의 더 많은 교류 기회를 만들어 상호 소통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새만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공유수면 점·사용료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등 내용 담겨

기본계획 제안 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 내용도 포함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는 △새만금 개발장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원택·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20년 11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후 계류해왔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가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폈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세계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또 발의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정운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신동근·홍영표·양경숙·조수진 의원 등도 연고의원들의 도움은 법안 통과에 원활한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기재위에서 논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사업 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

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은 도와 새만금개발청,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원과 의 진정된 협치가 가져다준 가치있는 결실이며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진안·무주·장수)은 "개정안 국회 통과로 조세 감면이 가능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신설되는 투자 유치 인센티브가 마련 된 만큼,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어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해 새만금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상호이해도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기자

토 일요일 신문입니다.

## '따뜻하게 보내시길'... 도내 곳곳 연말 공연·전시 '풍성'

도립국악원 송년콘서트·어린이예술단 음악회  
도립미술관 '한봄림, 영원한 운동' 특별전 등  
진안 마이산 겨울동화 축제 등 시·군 축제도

연말을 맞아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문화·전시행사로 따뜻하게 채운다.

먼저 공연 분야에서는 오는 1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북도립국악원의 '호랭이가 답답 물어갈 뺑파' 창극, 원정현류 대금산조 협주곡, 제석거리 등 송년국악콘서트 공연과 17일 전북도 어린이예술단(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의 송년음악회 '선물' 공연이 진행돼 한 해의 역량이 총결집된 수준 높은 공연예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전주시

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뮤지컬 '열피자켓', 연극 '라이어'를 비롯한 20여 개 공연이 이날 맡까지 진행된다.

전시 분야에서는 전북도립미술관에서 한국 현대 도예 1세대이자 전북 현대 도예의 기틀을 마련한 한봄림의 도자 예술과 활동을 조명하는 '한봄림 영원한 운동' 특별전, 모야신을 주제로 한 소장품 기획전시 '미중시무',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70세 이상 원로작가의 도립미술관 소장품을 전시한 '도화(畵)산: 전북에 피어오른 불씨들' 기획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관람객

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예술회관에서는 매당 이명순 개인전, 예진 민화 회화전 등 8개 개인·단체 전시가 이날 맡까지 진행된다.

또 성탄절 주간인 23일부터는 진안 등 4개 시·군에서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겨울축제가 열린다. 이중 진안에서는 마이산 겨울동화 축제 가 개최돼 겨울놀이(얼음미끄럼틀, 컬링장), 동화나라 포토존, 흥심떡볶이 나눔 행사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2월 연말 도내에서 펼쳐지는 문화·전시행사를 다채롭게 즐기시고, 전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도내 시·군에 방문해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항상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열린의정! 으뜸의회!

# 임실군의의회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옥정호 붕어섬(외안섬)

천담구덩마을

관촌 사선대

임실군의의회